

CULTURE NOTE



52722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로 215 (칠암동)
T. 1544-6711

Gyeongnam Culture & Art Center
52722 215, Gangnamro, Jinju-si, Gyeongsangnam-do, Korea

 청렴한 당신이 문화예술을 아름답게 합니다.

문화
노트
즐거움 내일

2021 10-12

공연·전시 일정

● 대공연장 ● 로비 ● 제1전시실 ● 제2전시실

10

October

SUN	MON	TUE
3 개천절 ● 2021 진주가요제	4 대체 휴일	5 ● 테너 강동일 제4회 독창회
10	11 대체 휴일	12 ● 진주시립교향악단 제89회 정기연주회
17 ● 경상국립대 사범대 미술교육과 제38회 졸업전시회(∼19일) ● 전국영상인연합진주지부 사진전시회(∼19일)	18	19
24	25	26
31 ● 연극 '토지Ⅱ'		

11

November

SUN	MON	TUE
	1	2
7	8	9 ● 제19회 진주챔버콰이어 정기연주회
14 ● VK체임버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15	16
21	22	23
28 ● 진주관악단 제58회 정기연주회	29	30 ● 리버사이드 앙상블 진주시민이 함께 부르는 칸타타 '고향의 봄'

12

December

SUN	MON	TUE
5 ● THE GREATEST: 전율 정동하X소향 콘서트	6	7
12	13	14 ● 진주시립교향악단 송년연주회
19 ● 진주YMCA 청소년 오케스트라 제11회 정기연주회	20	21
26	27	28

WED	THU	FRI	SAT
		1 ● 전국사진촬영대회 작품 전시(∼5일)	2
6 ● 2021 개천미술대상전 입상작 전시(∼15일)	7	8	9 한글날
13	14 ● 극단현장 수무바다 흰고무래	15 ● 극단현장 수무바다 흰고무래	16
20	21 ● 제51회 축석회전(∼26일)	22 ● 제13회 진주아외사생회 정기전(∼26일)	23
27	28 ● 2021 제44회 경상남도 미술대전(∼11월 1일)	29 ● 연극 '토지Ⅱ'	30 ● 연극 '토지Ⅱ'

WED	THU	FRI	SAT
3 ● 제24회 진주탈춤한마당	4 ● 제24회 진주탈춤한마당 ● 2021 진주전통공예 비엔날레(∼21일) ● 문서하 개인전(∼9일)	5	6 ● 서울시티발레단 동화발레 '잠자는 숲속의 미녀'
10 ● 진주시립교향악단 제90회 정기연주회	11 ● 사단법인한국 서각협회 진주지부전(∼14일)	12	13 ● 엔니오 모리코네 심포니 시네마 콘서트
17	18 ● 참진주수채화회 제14회 정기전(∼22일)	19 ● 뮤지컬 '세종, 1446'	20 ● 뮤지컬 '세종, 1446'
24	25 ● '아트스페이스 남강' 입주작가전(∼30일)	26 ● 2021 진주시 융복합 민속예술 공연제작 지원사업 선정작 공연 ● 축 전통 문화의 모색전(∼30일)	27 ● 진주 이상근 국제 음악제 개막공연 '위로와 희망'

WED	THU	FRI	SAT
1 ● 문지영 피아노 리사이틀	2 ● [영상]오페라 라 보엠 ● 제45회 경남현대작가회전 및 동시대미술 학술세미나(∼7일)	3 ● 어린이 창작 뮤지컬 진주 판타지아 ● 양지와 음지 제23회 정기전 (서양화)(∼7일)	4 ● 진주시립국악관현악단 이상근 조주 2/86'
8 ● 푸치니 콘서트 오페라 '라 보엠'	9 ● 이한우 개인전(∼14일)	10 ● 제37회 진주여류작가회전 (∼13일)	11 ● 2021 진주국제재즈 페스티벌
15	16 ● 정미조X탈로X박주원 'The 3 Live' ● 제33회 경상남도 서예대전 (∼21일)	17 ● 사천·진주시민을 위한 용남중 가정 오케스트라 제2회 정기연주회 '위풍당당 꿈 키움' ● 제35회 죽한문연전(∼21일)	18 ● 진주시립국악관현악단 제70회 정기연주회
22 ● 모스크바 국립발레단 '호두까기 인형'	23	24	25 성탄절
29	30	31	

※ 문화노트에 게재된 모든 공연 및 전시의 일정 · 출연진 · 프로그램은 코로나19와 주최 측의 사정에 의해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0.29. - 10.31

금 19:30
토 15:00
일 15:00

대공연장

예매 인터파크 티켓

균일 10,000

10세 이상

경남도립극단 연극 토지Ⅱ

주최  경상남도
주관 *경남도립예술단

경남을 넘어 부산, 서울에서 호평을 받았던 경남도립극단의 창단작품 연극 <토지Ⅰ>의 후속작 <토지Ⅱ>가 올 가을 경남도민을 찾는다. 경남의 대표 작가 박경리 대하소설 '토지'를 원작으로 한 연극 <토지>는 총 2부작으로 기획되었다. <토지Ⅰ>은 경남 하동을 배경으로, 최참판가의 이야기와 '서희'가 간도 용정으로 이주하기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토지Ⅱ>에서는 일본과 '조준구'의 핍박으로 평사리 주민들과 함께 간도로 이주한 서희가 평사리 땅을 되찾고, 고향으로 돌아와 광복을 맞이하기까지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2021년 경남도립극단의 두 번째 정기공연인 <토지Ⅱ>는 박장렬 연출(도립극단 예술감독)과 김민정 작가, 엄진선 무대디자이너, 박진규 음악감독, 박근여 의상디자이너 등 <토지Ⅰ>의 스태프들이 다시 한 번 의기투합해 <토지Ⅱ>을 뛰어넘는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또, <토지Ⅰ>의 주역인 박승규와 김수현, 배진만, 박현철, 박선혜 배우를 비롯해 경남 출신의 중견배우 한갑수와 박진수, 올해 대한민국연극제에서 신인연기상을 수상한 정으뜸 배우 등 30여 명의 출연진이 열연을 펼칠 예정이다. 일제 강점기 하의 우리 민중들의 삶과 애환, 한국 근대를 표현한 무대와 의상, 음악 등 새로운 볼거리로 가득한 <토지Ⅱ>, 세월에 바래지 않는 '사람'이 살아가는 이야기, 바로 우리를 삶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연극 <토지Ⅱ>에 경남도민을 초대한다.



서울시티발레단 동화발레 잠자는 숲속의 미녀

11.6.

토 11:00, 15:00

대공연장

균일 20,000

48개월 이상

주최  한국문화예술재단연합회

주관  경상남도문화재단연합회 서울시티발레단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서울시티발레단 동화발레 <잠자는 숲속의 미녀>가 경남도민을 찾아온다. 이번 공연은 힐링 동화 발레를 표방하며, 관객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KBS 성우 송연희가 직접 무대에서 동화를 들려주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작품 중간 중간에 대사와 내레이션을 넣어서 아이들의 이해와 상상력을 최대한 이끌어 내고, 무대와 아이들이 서로 교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펼쳐낸다. 어린이들에게 자칫 지루할 수 있는 전막 발레나 유명한 장면들만 표현하는 갈라 공연과는 달리, 실제 동물과 유사한 의상을 제작 하여, 어린이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연출하였다. 차이콥스키의 음악 선율과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아름다운 발레 동작들이 어우러져, 아이들은 물론 성인 관객들의 오감을 자극하는 매력적인 작품이다.

사단법인 서울시티발레단은 2009년에 창단하여 다양한 클래식 발레와 수준 높은 발레 레퍼토리를 보유한 단체이다. 무용과 관련한 전 예술분야의 전문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중에게 다가가기 쉬운 작품들을 공연하여, 발레 대중화에 힘쓰고 있다. 발레 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한 새로운 레퍼토리 개발과 무용수의 실력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으며, 현대 문화예술의 트렌드인 예술 융복합 작업들에 관심을 가지고, '동화 인형 발레극' 창작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엔니오 모리꼬네 심포니 시네마 콘서트

11. 13.

토 17:00

대공연장

R 30,000

S 20,000

A 10,000

8세 이상

해설 김문경

지휘 안두현

연주 아르츠심포니오케스트라

첼로 송영훈

피아노 송영민

주최 한국문화예술기관연합회

주관 서울문화재단

STOMP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보다 더 유명한 음악을 남긴, 시대의 아이콘 '엔니오 모리꼬네'를 위한 헌정 콘서트가 펼쳐진다. 2020년 7월, 세상을 떠난 영화 음악감독 엔니오 모리꼬네를 추모하는 마음을 담아 공연을 준비했다. <엔니오 모리꼬네 심포니 시네마 콘서트>는 영화보다 더욱 깊은 여운을 남긴 엔니오 모리꼬네의 음악을 영화 속 명장면과 함께 감상하는 자리다. <시네마천국>, <미션> 등 무려 500여 편이 넘는 영화음악을 통해, 아름다운 선율을 선물한 엔니오 모리꼬네의 작품들을 재조명하며, 우리에게 남긴 따뜻한 멜로디를 다시 추억해 본다. 이번 공연에서는 61인조 대규모 아르츠심포니오케스트라(지휘 안두현)와 첼리스트 송영훈, 피아니스트 송영민이 엔니오 모리꼬네의 영화음악들을 생생하게 연주할 예정이다. 여기에 음악평론가 김문경이 엔니오 모리꼬네의 삶과 음악적 특징, 그리고 한스 짐머 등 다른 영화 음악가와 차별점 등을 재치 있게 해설하여, 엔니오 모리꼬네의 음악세계를 더욱 재밌고 감동적으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프로그램

영화 <미션> O.S.T - Gabriel's Oboe

영화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아메리카> OST - Amapola / Debora's Theme

영화 <시네마 천국> OST - Toto and Alfredo

영화 <대부> OST - Love Theme

영화 <러브 어페어> OST - Piano Solo

영화 <피아니스트의 전설> OST - Playing Love

문화
재단





뮤지컬 세종, 1446

11.19.- 11.20.

금 19:30
토 15:00

대공연장

V 60,000
R 40,000
S 30,000
A 20,000

8세 이상

주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관 경상남도문화예술회관 여주시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작 HJC CULTURE 여주시문화재단

조선의 왕이 될 수 없었던 이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군이 되다! 뮤지컬 <세종, 1446>이 경남도민을 만난다. 시력을 잃어가면서도 한글창제에 대한 의지를 놓지 않았던 세종의 시련과 고뇌,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에 근간을 두었던 세종의 창의와 혁신, 각박한 현실에 지친 이들에게 세종이 전하는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만난다. 2017년 여주 세종국악당에서 리저널 트라이아웃(regional tryout, 시험공연)을 선보인 후, 영국 웨스트엔드 워크숍과 리딩 쇼케이스를 거쳐, 2018년 초연했다. 2018년 세종대왕 즉위 600주년 기념 공연을 위한 완벽한 사전 검증을 거친 셈이다. 300여 벌의 화려한 궁중 의상과 8개의 장지문 패넬을 활용한 무대 전환은 관객들의 시선을 충분히 사로잡는다. 여기에 대금, 해금 등의 전통악기와 드럼, 기타 등의 현대악기가 절묘하게 어우러진 아름다운 음악도 눈길을 끈다. 대한민국 대표 문화콘텐츠 '세종대왕'을 소재로,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웃고 울고 즐길 수 있는 작품이다. 한국에 오면 꼭 봐야하는 뮤지컬! 한국인이자면 꼭 봐야하는 뮤지컬 <세종, 1446>을 놓치지 말자.

줄거리

1418년 태종은 방탕한 생활을 일삼는 세자 양녕을 폐하고, 서책에 빠져 사는 충녕을 세자 자리에 올린다. 게다가 태종은 세자교육을 받지 않은 충녕에게 선위까지 해버린다. 어리둥절한 사이에 왕이 된 충녕. 하지만 태종은 충녕의 뒤에서 대신들을 조정하며 정치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그런데 평소 외척세력이 커지는 것을 경계했던 태종의 눈에 충녕의 장인인 심온을 따르는 무리가 늘어나는 것이 포착된다. 이에 심온은 조작된 사건에 연루되어 죽임을 당한다. 자신의 무능으로 인해 장인이 억울하게 죽게 되었다고 자책하는 충녕. 게다가 아내마저도 죄인의 딸이라며, 내쳐질 위기에 처하자 용단을 내린다. 자신만의 정치를 하기 위해 아버지에게 맞서는 충녕. 그는 결국 아버지의 손에서 벗어나 용상을 지켜낸다. 그러나 충녕 앞에는 수많은 걸림돌이 놓여 있는데...

리버사이드 앙상블 진주시민이 함께 부르는 칸타타 고향의 봄 11.30.

화 19:30

로비

사전예약에 의한 무료관람

전체관람

경상콘서트콰이어 〈진주시민이 함께 부르는 칸타타 '고향의 봄'〉이 경남문화예술회관을 찾는다. 경상콘서트콰이어는 경남 지역 유일의 민간 전문 합창단으로서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해 활발한 연주 활동을 펼치고 있는 단체이다. 2016년 경상오페라합창단이라는 이름으로 창단하여, 매년 5~6회 오페라 합창과 다양한 콘서트에 출연해 오고 있던 중, 지역 내 대표 작곡가이자 지휘자인 전옥용 상임지휘자의 취임으로 2020년부터 단체명을 변경하고 법인화하여 경상콘서트콰이어로 재탄생되었다. 경상콘서트콰이어는 부산과 경남, 전남 등 전국을 무대로 연주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오페라와 정기연주회, 찾아가는 음악회 등 다양한 공연을 통해 관객을 만나고 있다. 이날 함께하는 진주시 소년소녀합창단은 서부경남지역 소년소녀의 건전한 정서함양과 합창음악 발전에 기여하고자, 2021년 6월에 설립되었다. 음악적 재능과 합창에 열의가 있는 초·중학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재육성 및 지역민의 문화향유를 도모한다. 정기연주회와 순회연주회, 초청공연 및 오페라공연 참여 등 수준 높은 공연들을 통하여, 다양한 문화적 요구에 부응하는 문화사절로서 지역문화예술 창달 및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경상콘서트콰이어



예술감독 최강지
단무장 이진희
지휘 전옥용
반주 정지아
소프라노 김효주
테너 김태형
바리톤 손범우
합창 경상콘서트콰이어
진주시 소년소녀합창단

12. 1.

수 19:30

대공연장

V 40,000

R 30,000

S 20,000

A 10,000

8세 이상

스위스 제네바 국제 콩쿠르와 이탈리아 부조니 국제 콩쿠르에서 연이어 우승을 차지한 피아니스트 문지영은 국내외 우수 오케스트라들과의 협연과 세계적인 무대에서의 독주회를 통해 가장 주목 받는 젊은 음악가이자 피아니스트로 명성을 쌓고 있다. 1957년 두 콩쿠르에서 모두 우승한 피아노 여제 마르타 아르헤리치의 행보를 닮은 연주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문지영은 부조니 콩쿠르의 심사위원장 외르크 데무스로부터 '이 시대에서는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음악성의 자연스러움을 그녀에게서 발견했다'는 극찬을 받았다.

문지영은 정명훈을 비롯하여 리오넬 브랑기에, 알렉산더 셸리, 발렌티나 펠레지, 디트리히 파레데스, 로베르토 벨트란-자발라, 다니엘 보이코, 빅토르 파블로 페레스, 마리오 벤자고, 벤자민 베일, 사샤 괴첼, 제임스 저드, 요엘 레비, 김대진 등의 지휘로 스위스 로망드 오케스트라, 아시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재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이탈리아 트리에스테 베르디 극장 오케스트라, 올림피코 극장 오케스트라, 부조니 누오바 오케스트라, 상트페테르부르크 심포니, 이탈리아 팔레르모 클래식 심포니 오케스트라, 헝가리 마브 심포니 오케스트라, 마드리드 주립 오케스트라 등 세계 정상급 오케스트라와 협연 무대를 가졌으며, 국내 무대에서는 KBS교향악단, 서울시향, 수원시향,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부천시향, 대전시향, 광주시향, 춘천시향, 전주시향, 대구시향 등 다수의 오케스트라와 협연을 이어오고 있다.

또한,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파리 에콜노르말 코르토홀, 프라하 루돌피눔 드보르작홀, 폴란드 비드고슈치 아르투르 루빈스타인 필하모니, 뉴욕 스타인웨이 홀, 영국 위그모어홀, 헝가리 리스트 아카데미 등 전 세계 저명한 공연장과 이탈리아 아르투로 베네데티 미첼란젤리 페스티벌, 팔레르모 클래식 페스티벌 등에서 리사이틀을 진행하였으며, 뉴욕을 포함한 미국 동부 리사이틀 투어도 진행하였다. 이 외에도 일본, 아르헨티나, 러시아, 스위스, 멕시코, 페루, 벨기에, 덴마크 등 세계를 무대로 활발한 활동을 선보이고 있다.

다수의 리사이틀을 통해 독주자로서 뛰어난 연주력을 인정받은 문지영은 실내악 무대를 통해서도 실력을 가감 없이 보여주고 있다.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 서울국제음악제, 2020 예음마루 실내악 페스티벌 등의 축제와 라슬로 페뇨, 크리스토퍼 템포렐리, 양성원, 조영창, 김대진, 강동석, 이경선, 김다미 등과 듀오 리사이틀을 비롯하여 다수의 실내악 무대를 통해 다방면으로 실력을 나타내며 지속적으로 관객들과 만나고 있다.

올해 문지영은 KBS교향악단, 대전시향과 협연했으며,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에도 참여했다. 또한, 예술의전당과 폴란드 바르샤바 〈쇼팽과 그의 유럽〉 국제 페스티벌에서 리사이틀을 진행하는 등 국내외 활동을 활발하게 이어 나가고 있다.



문지영 피아노 리사이틀



영상으로 만나는 오페라 라 보엠

12.2.

목 19:30

대공연장

사전예약에 의한 무료관람

8세 이상

미미(소프라노) 권은주

로돌포(테너) 최원휘

무제타(소프라노) 김유진

마르첼로(바리톤) 김기훈

쇼나르(바리톤) 이승왕

콜리네(베이스) 박준혁

베누아/알친도로(베이스) 박경태

파피놀(테너) 이승규

금세기 가장 아름다운 오페라 <라 보엠>을 영상으로 만난다! 경남문화예술회관은 지난 3월 국립오페라단 <라 보엠>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관객 관람을 중단하고, 녹화 중계를 추진하였다. 지난 4월 30일, 소프라노 서선영과 테너 박지민 등이 출연한 1회차 공연을 네이버 TV로 중계하여, 11,000회가 넘는 조회 수를 기록해 화제를 모았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으로 만나는 오페라 '라 보엠'>은 소프라노 권은주와 테너 최원휘 등이 출연한다. 오페라 <라 보엠>이 전 세계인에게 여전히 사랑받는 이유는 차가운 현실을 묘사하는 이야기 곳곳마다 역설적으로 아름답고 서정적인 아리아가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그 중 주인공 로돌포와 미미가 노래하는 '그대의 찬 손'과 '내 이름은 미미'는 시공간을 뛰어넘어 지금까지 많은 오페라 팬에게 사랑받고 있는 대표 아리아이다. 이 공연은 가슴을 적시는 아름다운 아리아와 모든 이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스토리로 꾸며져, 많은 관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것이다.

La G. Puccini
Bohème

정미조 X 말로 X 박주원 THE 3 LIVE

12. 16.

목 19:30

대공연장

R 30,000

S 20,000

A 10,000

8세 이상



주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Korea Culture and Arts Commission

주관  경상남도문화예술위원회 JNH유지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가요의 전설과 한국 재즈의 빛나는 현재를 만난다! 가요계의 전설 정미조와 최고의 재즈 보컬 말로, 신들린 핑거링의 기타리스트 박주원이 한 자리에 모인다. 가요사에 불멸의 곡으로 남은 '개여울'의 주인공 정미조는 지난 2016년 은퇴한지, 37년 만에 극적으로 가요계로 복귀해 큰 화제를 불러일으킨 바 있다. 한국을 대표하는 재즈 뮤지션 말로와 박주원은 각자의 자리에서 모두 새로운 음악적 지평을 열어왔다. 이들을 한 무대에서 만나는 것은 단순히 콘서트를 보는 것 그 이상이다. 삶의 깊은 서사를 전하는 정미조, 자신이 원하는 음을 자유롭게 부리며 무대를 완벽하게 지배하는 말로, 그리고 객석을 압도하는 박주원의 기타는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음악적 장관을 선사할 것이다. 이지적이면서도 기품 넘친 정미조의 노래, 신들린 듯한 말로의 스킷, 불꽃같은 박주원의 기타 속주가 한 무대에서 어우러져 음악 언어로 보여줄 수 있는 최대치의 감동을 선사한다. 이들의 열정적 연주와 노래, 그리고 음악적 몰입을 지켜보는 일은 누구에게라도 특별한 경험이 될 것이다. 팝과 재즈를 넘나드는 그 특별한 순간을 만나보자.

프로그램

Johnny guitar
Florzinha
피리 부는 사나이
왜 불러
Armando's rumba
Charade
Tsunami
I'll be there
러브 픽션

The Last Rumba
개여울
귀로
휘파람을 부세요
그리운 생각
불꽃
Autumn leaves
Sway